

표고버섯·더덕... 임산물 소득 늘었다

산림청, 주요 임산물 7개 품목 생산비 조사 결과 광주·전남 뚝은 감·취나물 등 995억원 상당 생산 재료비·노임 단가 상승으로 생산비도 3% 오름세

지난해 주요 임산물 생산비가 전년 대비 3%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임가소득 증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임가소득은 지난 2018년 기준 3906만원으로, 10년 전인 3089만원보다 26.4% 증가했다.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에서 재배된 밤·대추·호두·뚝은 감·표고버섯·더덕·취나물 등 주요 임산물 7개 품목 생산량은 5만442t으로 집계됐다. 이들 생산

금액은 995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7개 품목 가운데 뚝은 감이 458억원 상당 생산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고버섯은 건표고 92억원·생표고 184억원 등 276억원 생산되며 뒤를 이었다. ▲취나물 105억원 ▲밤 96억원 ▲더덕 57억원 ▲대추 1억1300만원 ▲호두 9500만원 순으로 생산액이 높았다. 산림청이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뚝은 감·표고버섯·더덕·곰취) 생산비 조사해보니 전년 대비

3% 내외의 오름세를 보였다. 위탁영농비, 임차료 등의 비용은 하락했지만, 노임 단가 상승으로 노동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고버섯은 표고목과 톱밥 배지 구매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밤을 제외한 모든 품목 생산량이 늘면서 소득이 전년보다 평균 2.5% 증가했다. 밤은 9월 태풍피해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11.3%나 떨어졌다. 1ha(3000평) 기준 연간 소득은 곰취(시설재배)가 6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실류 중에서는 대추가 1900만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이 많았다. 노동 투입 단위 시간당 창출되는 노동

생산성은 더덕(2년근 생산)이 4만3천원으로 호두, 곰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단위 토지 면적당 산출되는 토지 생산성은 곰취(시설재배)가 1ha당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임가소득은 2018년 기준 3906만원으로, 전국 평균(3648만)보다 258만원(7.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개 도와 비교하면 4번째로 높은 소득이다. 전북을 포함한 전라권 임가소득은 2016년 3389만→2017년 3719만→2018년 3963만으로, 매년 200만~300만원 넘게 증가하고 있다. 전남지역 임가소득 가운데 임업소득은 35.5%에 달하는 1398만원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일손 부족한 농촌에 힘 보태요 aT, 농번기 동안 농촌일손돕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전사 차원의 '농촌일손돕기'를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급차질 등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마련됐다. aT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100여 명이 참여해 무안 양파 수확을 도왔다. 같은 달 13일에는 aT 직원들이 분사 인근 나주 배 농가를 찾아 배 적과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aT는 6월 말까지 분사와 지역본부 소재 14개 시군의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 마을환경 가꾸기 등 농촌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든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국민행동 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양만점 파프리카 드세요” 17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파프리카(개당 890원)를 선보이고 있다. IT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농작물 재배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팜’ 기획전은 오는 20일까지 광주지역 4개 롯데마트에서 진행된다. <롯데쇼핑 제공>

‘못난이 농산물’ 가공해 수출 효자로 재탄생

프랜차이즈 등과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함께 일명 ‘못난이’로 불리는 비규격품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프리카·딸기·포도·버섯 등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들은 비규격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라프룻이 수출상품 개발과 기획을 맡는다.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대행 업무를 담당한다. CJ푸드빌과 커피베이, 디디 등 해외 진

출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공제품을 구매하고, 메뉴 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고, aT는 참여사별 업무 분장과 관리, 수출 사업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딸기는 지금까지 97t을 제품화했고, 앞으로 연간 500t 규모를 제품화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프리카와 딸기, 포도, 버섯 등 4개 품목의 비규격품 농산물의 상품 개발과 수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출 농가와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 소득 제고, 기업의 해외 매출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이번 사업처럼 적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청년창업농 위한 최고 5%대 적금 출시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오른쪽)가 지난 13일 '행복이음미래농부적금' 1호 가입 행사를 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1호 가입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연 최고 5%대 금리를 적용하는 '행복이음미래농부적금' 1호 가입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영농새내기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 '행복이음미래농부적금'은 지난 13일 출시됐다. 평동농협과 광주본부는 이날 평동농협 본점에서 1호 가입행사를 진행했다. 이 상품은 현재 금융권 최고수준인 연 5%대 고금리 적금상품이라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창업농 4.0%)와 농·축협별 최고 0.5% 추가 제공으로 최대 4.5%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계좌로 가입자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는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이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31일까지 가입고객 선착순 2020명에 1만원 상당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영농새내기층의 목돈만들기를 도와 농가소득을 높여겠다”며 “청년창업농에게 추가 혜택을 주면서 미래 농업인력 성장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한국형 스마트팜 해외진출 모색

공공성 확보·수출사업화 논의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5일 '한국형 스마트팜 해외진출 토론회'를 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농어촌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네트워킹으로 초연결 되는 플랫폼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공유농업과 한국형 스마트팜 해외진출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팜 공공성 확보와 수출사업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은 중국, 싱가포르 등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대규모 생산시설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및 스마트 빌리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창욱 농어촌연구원 연구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온실 모형과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팜 온실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부족한 농경지와 고온 극복이 필요한 사막지역에 물절감 기술 및 방파패키지의 최적화 모델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희택 농업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은, 현재 재단에서 시설원에 22종, 축산 19개에 대한 국가표준과 표준기술 확산지원사업과 해외 테스트 베드(시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팜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유경제와 스마트 농업분야의 최신 트렌드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한국 농업의 해외진출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